

금융기관의 기업대출변동에 관한 이론적 고찰

최길현*

目 次	
I. 문제제기	III. 은행의 기업대출 제약 요인
II. 은행의 기업대출 관련 이론	IV. 결 론

I. 문제제기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은 자금공급자(가계)인 흑자경제주체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이를 자금수요자(기업)인 적자경제주체에게 증개하는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통화정책을 경제전반에 파급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King and Levine(93)은 금융기관이 i)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기업활동에 대한 평가(evaluating), 관리(management), 자금지원(funding)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ii) 전망 있는 기업가 선정과 유망한 기업가에 대한 자금공여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하여 혁신의 성공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Stiglitz(85)는 금융의 주된 기능은 정보생산과 기업감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기업대출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금융기관은 통화량, 이자율 변화 등 통화정책 이외에 여러 요인에 의해 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고 축소함으로써 실물경제에 그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는 금융기관인 은행의 기업대출 변동과 관련하여 은행이 어떤 경로, 어떤 요인 때문에 기업대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그 대표적 이론인 신용중시 이론과 신용경색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단국대학교 상경학부 경제학과 강사, 화폐금융론 전공

II. 은행의 기업대출 관련 이론

1. 신용중시 이론

신용중시(credit view)이론이란 통화량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의 변동을 통해서도 기업 대출 등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로 흔히 대출경로(lending channel)로 지칭된다. 신용중시 이론은 초기에 루사(R. Roosa), 멜처(A. Meltzer), 브루너(K. Brunner)등이 주장하였으나 최근에는 블라인더(A. S. Blinder), 스티글리츠(J. Stiglitz), 버난케(B. S. Bernanke)등에 의해서 크게 부각되고 있다. 신용중시 이론¹⁾은 다음과 같은 기본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 ① 자본시장에서 비대칭적인 정보가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은행대출금을 채권, 주식 등 여타 비통화자산과 대체성이 불완전한 금융자산으로 간주한다.
- ② 중소기업은 외부자금을 자본시장을 통해 직접 조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달비용도 높아 외부자금 조달을 주로 은행대출에 의존하기 때문에 은행대출금은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있어서 여타 외부자금과는 다른 특별한 성격의 신용이다.

[그림 1]은 신용중시론의 신용경로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듯이 은행은 지급준비금, 대출이자, 대출조건 등에 따라 직·간접인 신용경로를 통해서 기업에게 대출을 행하여 실물경제에 파급시킴으로써 그 효과가 증폭된다고 주장한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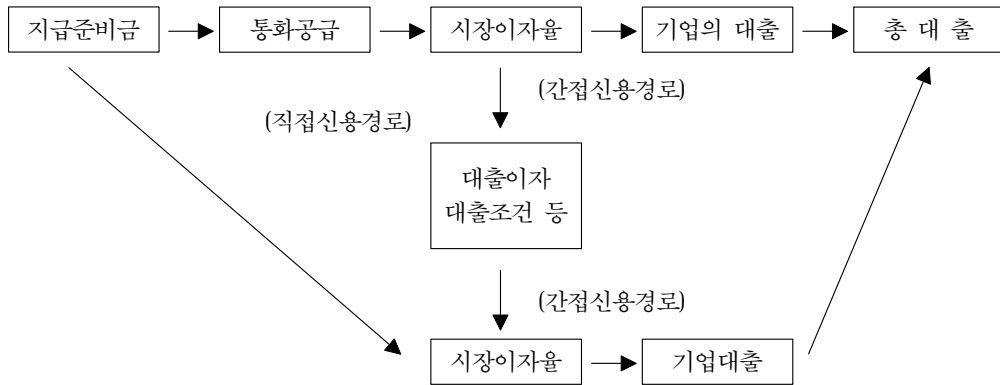
신용중시 이론은 은행대출의 역할을 중요시 하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이 은행이 공급하는 대출에 주로 의존하며 다른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규모가 크고 신용이 있는 기업은 상업어음시장이나 채권 시장 등에서도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으나 규모가 작고 신용도가 취약한 중소기업은 주로 은행대출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

1) 신용중시 이론과 대비되는 이론으로 통화중시 이론이 있는데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통화중시이론은 다음과 같은 기본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 ① 금융자산시장에는 거래적 수단인 통화와 비통화자산을 대표하는 채권만이 존재하며 은행대출금 등 여타 금융자산은 채권과 동일한 특성을 갖는 자산으로 간주한다.
- ② 또한 통화수요함수가 안정적이라는 가정하에서 통화공급의 변화가 실물경제에 일관성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

2) P. Morgan, "Are Bank Loans a Force in Monetary Policy?", *Economic Review*, FRB of Kansas City, April-June, 1992. 참조.

금융기관의 기업대출변동에 관한 이론적 고찰



[그림 1] 신용증시론의 신용경로 메커니즘

여기에서는 신용증시 이론의 입장에서 버난케와 블라인더 모형³⁾에 따라 IS-LM 모형에 은행대출시장을 추가하여 기업대출 등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변화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은행대출금에 대한 수요(L_d)와 공급(L_s)은 은행대출이자율(r_L), 채권이자율(r), 경제활동수준(y), 은행예금(D) 및 필요지급준비율(z^*)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L_d = L_d(r_L, r, y) \tag{1}$$

$$L_s = \lambda(r_L, r) D(1 - z^*) \tag{2}$$

은행대출시장의 균형조건은 다음과 같다.

$$L_d(r_L, r, y) = \lambda(r_L, r) D(1 - z^*) \tag{3}$$

다음으로 통화의 수요와 공급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M_d = L(y, r) \tag{4}$$

$$M_s = k_0(r) R \tag{5}$$

편의상 통화는 은행예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현금은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

3) B. S. Bernanke and A. S. Blinder, "Credit, Money, and Aggregate Demand",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8, Papers and Proceedings, May, 1988, pp. 435-439.

통화승수모형(k_0 는 통화승수)에 의한 통화공급은 은행지급준비금(R)과 이자율(r)에 의하여 결정된다.

통화시장의 균형 조건은 다음과 같다.

$$L(y, r) = k_0(r)R \quad (6)$$

마지막으로 은행대출시장의 역할을 반영한 재화시장은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y = y(r, r_L) \quad (7)$$

식(3)의 우변항에 있는 D (여기서는 통화량)를 통화시장의 균형조건에서 얻은 통화량($k_0(r)R$)으로 바꾸면

$$L_d(r_L, r, y) = \lambda(r_L, r) k_0(r)R(1 - z^*) \quad (8)$$

를 얻으며 이 식을 전미분하여 r_L 에 관하여 정리하면 다음 식을 얻을 수 있다.

$$r_L = \phi(r, y, R) \quad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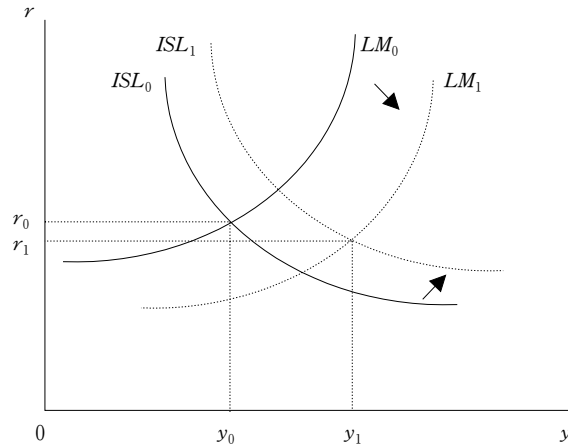
위 식을 식(7)에 대입하면 y 가 지급준비금(R)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y = (r, \phi(r, y, R)) \quad (10)$$

IS 곡선에 신용(은행대출)을 반영한 ISL 곡선을 얻게 되며 [그림 2]와 같이 나타날 수 있다.

$ISL-LM$ 체계에 통화정책이 y 및 r 에 미치는 효과를 보기로 하자. 만약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수단을 확장적인 방향으로 운영하면 은행의 지급준비금(R)이 증가하게 되어 통화공급이 통화승수배 만큼 증가함과 동시에 은행의 대출공급도 증가하게 된다. [그림 2]에서 지급준비금(R)이 증가하면 LM 곡선은 물론 ISL 곡선도 우측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y 는 y_1 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y 의 증가규모는 전통적인 $IS-LM$ 모형에서 보다 크다.

금융기관의 기업대출변동에 관한 이론적 고찰



[그림 2] 은행대출을 반영한 대출공급의 변화

통화정책이 보다 더 확장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신용경로를 통화정책의 과급메커니즘에 추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지급준비금(R)의 증가에 따른 이자율(r)의 하락 폭은 y 의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IS-LM$ 모형에서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⁴⁾. 왜냐하면 지급준비금(R)의 확대로 통화공급이 증가하지만 y 가 보다 크게 증가하여 거래를 위한 통화수요도 $IS-LM$ 모형의 경우보다 더 크게 증가함으로써 이자율 하락 폭이 둔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ISL 곡선은 전통적인 IS 곡선과는 달리 통화정책의 변경에 따른 은행의 지급준비금(R) 변동만으로도 이동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지급준비금의 변동이 은행대출의 공급과 수요를 변동시킴으로써 기업의 대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유동성 함정으로 LM 곡선이 수평인 경우에도 통화정책은 ISL 곡선을 이동시킴으로써 이자율과 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용중시 이론에 의한 대출경로는 금융시장이 발달되지 못하여 금융기관 및 기업의 자금 운용 및 조달수단이 제한적인 국가에서 통화정책의 과급경로로서 중시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도 금융자유화 및 금융혁신의 급속한 진전으로 통화수요함수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통화량과 실물경제변수간 연관성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신용중

4) R 이 r 에 미치는 효과($\partial r / \partial R$)가 부(-)의 값을 갖는다는 것은 식(3)과 식(6)을 이용한 비교정태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다.

5) 미국의 경우 1980년 이후 M_1 수요의 금리탄력성이 증대하여 시장금리의 변화와 반대방향으로 M_1 규모가 변화하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확장적 통화정책을 시행할 경우 금리하락에 따른 M_1 수요의 증가로 통화량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여 통화의 유통속도가 불안정해짐

시론인 대출경로가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대출경로의 효과에 대해 비판적인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그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⁶⁾. 이들 견해에 따르면 비은행금융기관의 역할 증대, 은행의 대출 중 대출약정에 의한 자동대출 비중 증대, 통화공급의 변화와 대출반응간 시차⁷⁾, 통화긴축시 은행의 예금 이외 대체자금 조달수단 확대, 자기자본비율 규제 강화 등으로 통화공급의 변화에 따른 은행대출시장의 변화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2. 신용경색 이론

신용경색(credit crunch)이란 주어진 대출금리하에서 은행의 대출여력이 감소하거나 대출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대출을 기피하는 현상을 가르킨다. 미국에서는 이미 1990~91년중 겪었던 경기침체를 계기로 이 이론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당시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단기금리를 20년만에 최저수준으로 유지하였으나 경기회복의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신용공급감소로 인한 신용경색이 연방준비은행의 확장적 통화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경로를 가로막음으로써 통화정책의 효율성이 낮아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는 IMF 금융외환 위기를 맞이하여 신용경색 현상이 나타나 수많은 기업이 쓰러지고 금융기관이 통폐합되었다.

버난케(Bernanke)등은 신용경색을 실질금리수준과 차입자의 신용이 일정한 상태에서 은행의 대출공급곡선이 좌상향으로 이동(leftward shift)하는 현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⁸⁾. 이와 같이 신용경색은 수요측이 아니라 공급측에서 파악한 개념이다. 예를 들어 경기침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투자 또는 소비수요가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신용위축 현상은 신용경색으로 보지 않는다.

신용경색의 형태로는 은행의 대출공급여력 감소와, 자금공급 여력이 있으면서 자발적인 여신기피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 은행의 대출공급여력 감소는 통화당국의 긴축정책, 부실여신증가에 따른 금융기관의 자본잠식, 금융감독당국의 BIS자기자본 비율 준수 의무 강화, 예금보험범위 축소에 따른 예금이탈 등에 기인한다. 둘째, 은행의 자발적인 여신기피 현상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초래되는 신용 리스크의 증대, 고금리로

으로써 통화량과 실물경제변수간 관계가 불안정하게 되었다.

6) 비판적인 견해에 대해서는 Morris와 Sellon(199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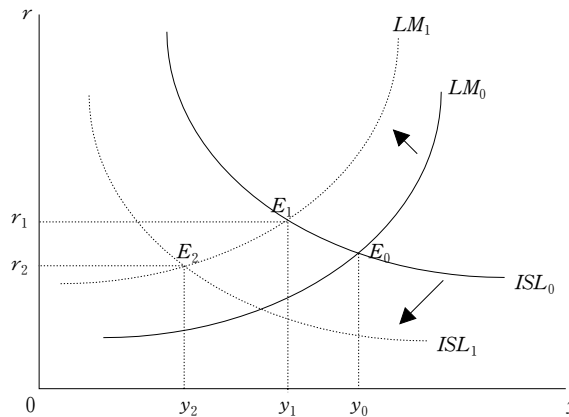
7) 통화긴축시 대출감소가 상당 기간의 시차를 두고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8) B. S. Bernanke and C. S. Lown, "The Credit Crunch",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January, 1991. p. 207.

인해 차입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하락하면서 초래되는 담보가치의 저하, 대출에 비해 안정성과 유동성이 높은 정부발행 채권 등에 대한 선호증대 등에 기인한다고 말할 수 있다⁹⁾.

여기서는 앞에서 살펴본 버난케와 블라인더의 $IS-LM$ 모형을 이용하여 긴축적인 통화정책으로 은행대출여력이 감소한 경우와, 통화정책의 변경이 없음에도 은행이 자발적으로 대출을 기피하는 경우, 두가지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먼저, [그림 3]은 긴축적인 통화정책으로 은행대출여력이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은행대출이 변화하는 경우이다. 이때는 통화량 감소와 대출감소가 동시에 나타나 LM 곡선이 좌상향으로 이동($LM_0 \rightarrow LM_1$)하게 되며 IS 곡선에 은행대출을 반영한 ISL 곡선도 좌하향으로 이동($ISL_0 \rightarrow ISL_1$)하게 된다. 전통적인 $IS-LM$ 모형에 따르면 경제수준은 y_0 에서 y_1 으로 위축되지만 $IS-LM$ 형에서는 y_2 까지 하락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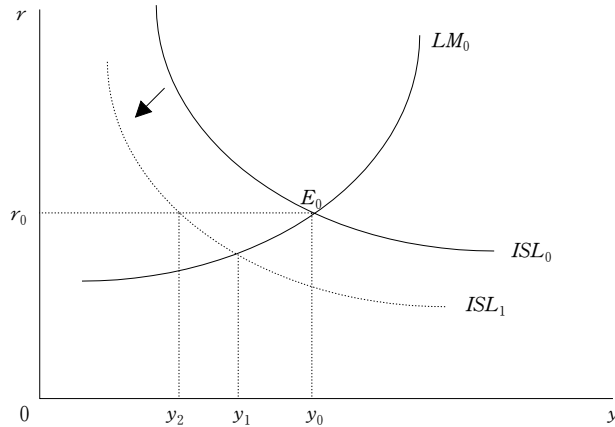
[그림 3] 통화긴축시 대출여력 축소

다음으로 [그림 4]는 통화정책 불변시 은행이 자금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신용 위험 증대, 차입자의 담보가치 저하 등을 이유로 은행이 대출을 기피함에 따라 은행대출이 감소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이때는 LM 곡선은 변동하지 않고 ISL 곡선만 좌하향으로 이동($ISL_0 \rightarrow ISL_1$)하게 된다.

9) P.C. Mosser, "Influence of the Credit Crunch on Aggregate Demand and Implications for Monetary Policy", *Studies on Causes and Consequences of the 1989~92 Credit Slowdown*, FRB of New York, February, 1994, pp. 259-2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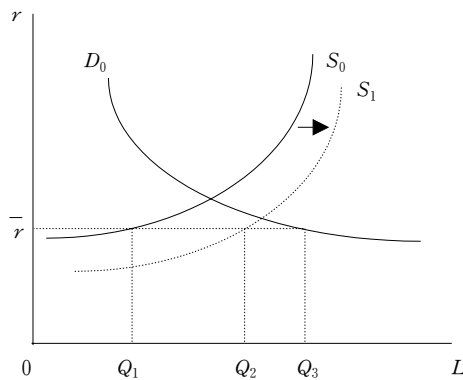
전통적인 $IS-LM$ 모형에 따르면 경제는 y_0 에서 그대로 유지되지만 $ISL-LM$ 모형에서는 경제활동이 y_1 으로 위축된다. 더욱이 초기 균형상태(E_0)의 금리수준(r_0)에서 신용할당¹⁰⁾이 도입되면 y_2 까지 축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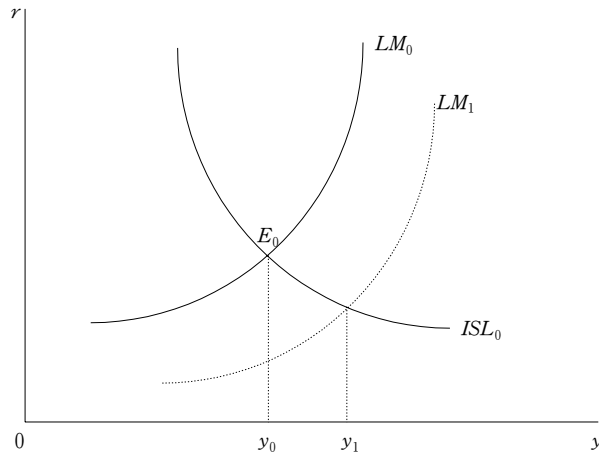
[그림 4] 통화불변시 은행의 대출기피

따라서 신용경색기에는 본원통화가 증가하여도 은행대출이 반드시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신용경색기에는 본원통화 공급이 늘어나더라도 은행은 대출보다는 국공채 등 신용 위험이 낮고 유동성이 높은 채권에 대한 투자를 확대시키기 때문¹¹⁾에 대출경로를 통한 통화

10) 신용할당이란 대출시장의 규제이자율(\bar{r})이 균형이자율보다 낮아 그림에서와 같이 Q_1 Q_3 만큼의 초과수요가 발생하게 되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신용할당하에서 통화공급의 증가로 은행대출(L)이 증가하여 대출공급곡선이 S_0 에서 S_1 으로 이동하면 대출공급량은 $0Q_1$ 에서 $0Q_2$ 으로 증가하게 된다.



정책의 과급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진다. 그 결과 [그림 5]에서와 같이 본원통화의 공급증가에도 불구하고 은행대출을 반영한 ISL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지 못한다. 이처럼 대출공급경로가 봉쇄되는 상황에서는 과생통화의 창출도 불가능해지므로 LM 곡선의 움직임이 거의 없거나 우측으로 이동하더라도 그 폭이 매우 작다.



[그림 5] 신용경색하에서의 대출공급 변화

이 이론은 IMF 금융외환위기 전후에 걸쳐 기업의 연쇄부도 및 재무구조 악화 등에 따른 은행의 대출자산 부실화, 대출가용규모의 감소 및 실물경제의 극심한 침체로 이어진 은행의 급격한 기업대출 축소를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한 이론으로 판단된다.

III. 은행의 기업대출 제약 요인

은행 등 금융기관은 기업대출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요인 등으로 대출을 축소하거나 확대를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대출을 축소하는 경우이다. 그러면 어떤 교란요인 때문에

11) 그 주된 이유는 대출의 경우 BIS가 부여한 위험가중치가 100인데 비해 국공채는 영(0)이기 때문에 기업대출을 늘리기보다는 국채 등 유가증권을 보유하려는 성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은행이 기업대출을 축소하는지를 Bernanke-Gertler-Gilchrist의 ‘신용경색의 실질효과 증폭 이론(financial accelerator)’을 원용¹²⁾하여 분석해 보기로 한다.

[그림 6]을 통해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로①>에서 기업의 담보용 순자산가치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는 급격한 시장금리의 상승, 자산가격의 하락(asset deflation), 국내통화의 평가절하 및 교역조건의 악화 등을 들 수 있다. 시장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면 장·단기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증가로 기업의 순현금흐름이 감소하기 때문에 기업의 순자산가치가 줄어든다. 자산가격의 하락은 대체로 금리상승¹³⁾, 자본수익 증가율의 둔화 및 자산버블의 붕괴 등에 의해 초래되는데 이 경우 기업의 부채대비 담보자산가치가 낮아짐에 따라 기업의 순자산가치가 하락한다. 국내 통화의 급격한 평가절하는 단기 부채의 상당부분을 외화로 기재한 기업(자산은 대부분 국내통화로 운용)의 재무상태를 악화시키게 된다. 또한 수출가격 하락 등에 의한 교역조건의 악화도 해당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이다. 교역조건의 악화를 제외한 나머지 교란들은 동시에 은행의 재무상태(순자산가치)를 악화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사선 <경로 ①>).

둘째, <경로 ②>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현금흐름의 감소 및 담보용 순자산 가치의 하락 등으로 기업의 재무상태가 크게 악화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파급효과를 상정할 수 있다. 첫째, 이들 기업이 외부자금을 조달할 때 지불해야 할 프리미엄(외부자금 조달비용 - 내부자금의 기회비용)이 상승하게 된다¹⁴⁾. 둘째, 해당 거래은행의 부실대출이 증가함에 따라 최초의 교란요인에 의해서도 감소한 은행의 순자산가치(사선 <경로 ①>)는 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처럼 기업 및 은행의 재무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은행의 재무구조 취약성이 심화되면 감독당국은 은행을 대상으로 대손충당금 적립 및 BIS 자기자본비율의 준수 의무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게 된다(<경로 ③>).

셋째, 은행은 기업의 높아진 신용위험을 회피하고 BIS 자기자본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 <경로 ④>에서와 같이 기존의 대출을 회수하거나 신규 대출을 삭감하는 등 대출취급에 매우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그 결과 대출공급을 감소하게 되는데 위의 예에서와 같이 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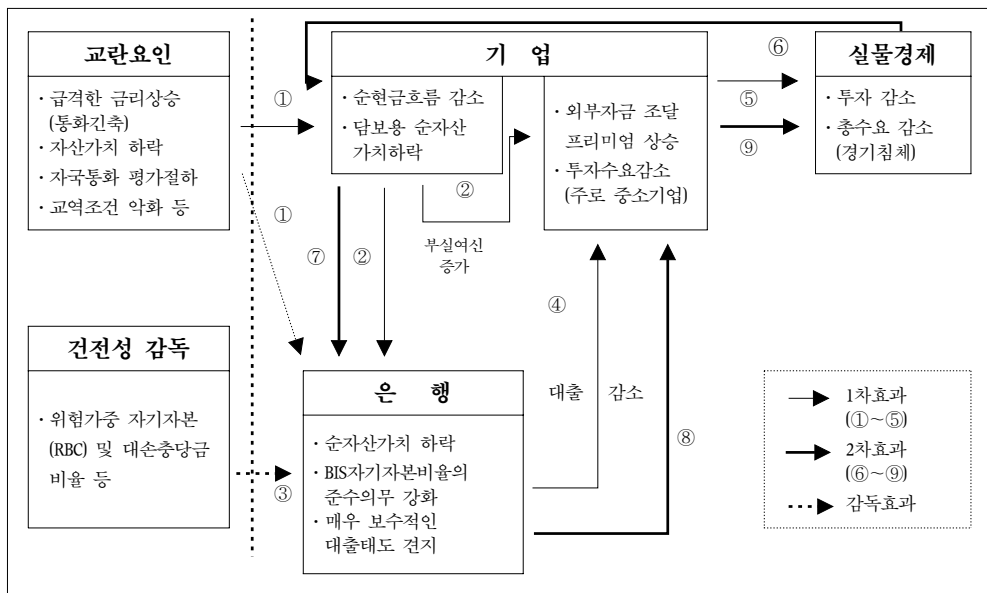
12) Bernanke, Gertler and Gilchrist(1996, 1998), *op. cit.*, 참조.

13) 금리의 변동과 자산(주식 및 부동산 등) 가격과는 陰의 관계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 전통적인 자본결정 모형(capitalization model)을 이용하여 수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즉, 자산가격(자산가치), $P_{a,t} = D_t / (r - g)$ 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D_t 는 자본수익률(배당금)을, r 은 할인율(금리)을, g 는 자본수익 증가율(배당금 증가율)을 각각 나타낸다.

14) 이와 같은 파급효과는 신용경로(credit channel)중 기업의 재무상태 변동에 의한 파급경로(balance sheet channel)에서 중시하고 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Bernanke-Gertler (1989), Gertler-Gilchrist (1993) 참조.

금융기관의 기업대출변동에 관한 이론적 고찰

행이 만약 자기자본비율을 충족시킬 필요성 때문에 대출공급을 급격하게 삭감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감소로 인해 발생한 신용경색 (capital crunch)으로 볼 수 있다. 신용경색이 초래되면 은행은 일반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주로 담보능력이 약하거나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보다 큰 폭으로 줄이는 경향이 있으며 그로 인해 이들 기업 (주로 중소기업)은 외부자금 (external funds)의 조달을 위해 평소보다 높은 차입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 기업은 당초 계획한 재고 및 고정투자에 대한 수요를 줄이게 되므로 <경로 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투자 등 총수요의 감소로 경기가 침체된다.



[그림 6] 은행의 기업대출 제약

이상에서 살펴본 <경로 ①~⑤>는 금융 및 실물부분의 제반 교란 (통화긴축에 의한 금리 상승도 포함)에 의해 기업의 순자산가치가 감소하면 은행의 재무상태도 악화되고 그로 인해 은행에 대한 자산건전성 감독이 강화됨에 따라 기업대출공급을 감소하게 되고 그 결과 기업 대출이 감소되어 실물경제가 위축되는 일차적인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출공급 감소의 일차적인 실질효과는 경제여건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폭되어 나타날 수 있다. 즉, 일차 효과에 의해 경기가 침체되면 <경로 ⑥~⑨>에서와 같이 다시 기업 및 은행의 재무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그로 인해 다시 대출공급이 축소되어 기업 (주로 중소기업)의 투자수요 및 총수요가 더욱 위축되는 이차 효과 (second-round effect)가 발생하고 이러한 과정은

경제 여건에 따라 일정기간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은행의 대출공급 경로를 분석해 보면 은행은 기업의 순자산가치가 하락(이는 결국 은행입장에서는 채무불이행 위험이 된다)하면 여유자금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여 실물경제의 위축을 가져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IV. 결 론

기업대출은 통화정책측면의 통화량, 이자율 이외에 은행의 대출변동 등 여러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기관의 기업대출 변동과 관련하여 버난케와 블라인더의 *ISL-LM* 모형을 이용하여 신용중시이론과 신용경색이론을 고찰하고 특히 어떤 요인 때문에 은행이 기업대출을 축소하는지를 Bernanke-Gertler-Gilchrist의 신용경색의 실질효과 증폭이론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신용중시 이론은 통화정책의 효과가 은행경로를 통하여 기업대출 등 실물경제에 파급된다는 이론으로 은행의 대출경로를 중시하고 있고 신용경색 이론은 통화정책 이외에 다른 요인 등으로 은행이 기업대출을 기피하여 통화정책 파급효과가 제약을 받는 요인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중시 이론이든 신용경색 이론이든 은행대출경로를 통해 기업대출로 이어지는 통화정책의 파급되는 과정에서 은행은 여러요인 등으로 기업대출에 변동을 가져오게 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대출의 변동은 통화정책 측면의 통화량, 이자율외에 다른요인들에 의해 더 영향을 받는다. 둘째, 신용경색하에서는 통화정책당국이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정하더라도 은행이 기업대출을 회피하여 통화정책의 파급효과가 제약을 받는다. 셋째, 신용이 낮은 대부분의 기업은 대출경로를 통한 은행대출에 의존성이 크다.

따라서 은행은 수익성 유지를 위해 기업대출을 축소할 수 있으나 은행의 지나친 수익성 제고는 통화정책 파급 및 실물경제의 제약과 전체 금융산업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은행은 기업의 성장이 곧 은행의 성장이라는 인식하에 기업과의 안정적 거래관계 형성을 통하여 대출시장에 내재하는 불안정성을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최길현, 『은행대출의 효율적 공급을 위한 신용보증제도의 유용성 분석』 2000. 8월. 단국대학교.
- Bernanke, B. S., Blinder, A. S., "Credit, Money, and Aggregate Demand",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8, 1988. pp. 435-439.
- _____, "The Federal Funds Rate and the Channels of Monetary Transmissio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2, September 1992, pp. 901-921.
- _____, Gertler, M., "Agency Costs, Net Worth and Business Fluctuat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1989, pp. 14-31.
- _____, Gilchrist, S., "The Financial Accelerator and the Flight to Quality",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February, 1996, pp. 1-15.
- _____, "The Financial Accelerator in a Quantitative Business Cycle Frame work", *NBER, Working Paper*, No. 6455, March 1998.
- _____, B. S., Lown, C. S., "The Credit Crunch",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January, 1991, pp. 205-247.
- Blinder, A. S., Stiglitz, J. E., "Money Credit Constraints and Economic Activity",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3, 1983, pp. 297-302.
- Morris, C. S., Sellon, G. H., "Bank Lending and Monetary Policy: Evidence on a Credit Channel", *Economic Review*, Vol. 80. FRB of Kansas City, 1995, pp. 59-75.
- Getler, M., "Financial Structure and Aggregate Economic Activity: An Overview",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Vol. 20, August 1988, pp. 559-588.
- _____, Gilchrist, S., "Monetary Policy, Business Cycles, and The Behavior of Small Manufacturing Firm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May, 1994, pp. 309-340.
- Mishikin, F. S., "The Channels of Monetary Transmission: Lessons for Monetary Policy," NBER Working Paper, No. 5464, February, 1996, pp. 60-77.
- Morris, C. S., Sellon, G. H., "Bank Lending and Monetary Policy: Evidence on a Credit Channel", *Economic Review*, Vol. 80. FRB of Kansas City, 1995, pp. 59-75.
- Morgan, P., "Are Bank Loans a Force in Monetary Policy?", *Economic Review*, FRB of Kansas City, April-June. 1992.
- Stiglitz, J. E., Weiss, A., "Credit Rationing in Markets with Imperfect Inform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1, June, 1981. pp. 393-410.

<ABSTRACT>

A theoretical analysis on the changes of corporate loans through the financial institution

Gil-Hyun Choi

The Corporate loans are influenced by many variables, such as bank loans, money supplies, and interest rates. This paper is focused on the Credit view and the Credit crunch view by using the ISL-LM model, made by Bernanke and Blinder, regarding corporate loans of a financial institution. The Credit view stated that the effect of the monetary policy is to feed into the real economy through the banks' lending channels. This keeps the accent on lending channels. The Credit crunch view has explained the reason banks are reducing the size of corporate loans, not only are the effects of the monetary policy being affected, but also other important factors. It has used Bernanke-Gertler-Gilchrist's Financial Accelerator model to explain these factors.

This paper concluded as follows.

First, it is shown that the changes of corporate loans are affected by other factors than money supplies and interest rates.

Second, banks are tend to evading corporate loans under the credit crunch circumstance, even if the monetary policy authorities control money supplies and interest rates.

Third, most corporate are depending on the bank's lending channels because it is too hard to take direct financing.

To conclude, banks are able to reduce corporate loans to keep productive returns, but if banks raise productive returns too much, it would threaten the stability of the financial industry. Banks must see that the growing of corporate leads to the development of banks; therefore they must make a stable transaction relationship with corporate and get rid of the instability of the loan market.